



## 완주 화산중 RCY 단원 우정의 선물상자 제작

대한적십자 전북지사(회장 김광호) 완주 화산중학교 RCY 단원들이 타국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우정의 선물상자 희망DIY 캠페인'을 실시했다. 9일 전북적십자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청소년 단원들이 직접 선물상자를 제작하고 편지를 작성해 진심이 담긴 희망을 전달했다"며 "학용품으로 구성된 우정의 선물박스는 오는 12월 네팔 해외봉사활동 시 현지학교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양병웅 기자

## 외국친구들에 '응원의 마음' 전해요

적십자 전북지사, 완주 화산중 RCY '우정의 선물상자 희망DIY 캠페인' 가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김광호)는 지난 8일 완주 화산중학교(교장 심웅택) RCY 단원 70명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타국의 친구들을 위해 '우정의 선물상자 희망DIY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정의 선물상자 희망DIY 캠페인'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세계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학용품을 포장하고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선물상자를 제작하고 편지를 직접 작성해 동봉함으로써 그들에게 진심이 담긴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우정의 선물상자는 학생들이 직접 마련한 공책, 색연필 세트, 필통, 수첩, 지우개 등의 학용품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제작된 우정의 선물 90박스는 올해 12월 중 진행될 네팔 해외봉사활동 시 현지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



지난 8일 완주 화산중 학교RCY단원70명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타국의 친구들을 위해 '우정의 선물상자 희망DIY 캠페인'을 진행했다.

될 예정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RCY단장 방수현 학생은 "외국에 있는 친구를 위해 학용품 상자를 포장한다는 것이 새롭고 재밌다"며 "네팔에 있는 친구들에게 제 마음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전북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12월 중 네팔 카트만두로 해외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063)280-5841, RCY본부로 연락하면 된다.

/완주=성영열 기자  
hys0007@daum.net



완주 화산중학교 RCY 단원 70명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타국의 친구들을 위해 '우정의 선물상자 희망DIY 캠페인'을 진행했다.

## “멀리 떨어진 친구들에게 진심 담긴 희망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완주 화산중 RCY 단원 '우정의 선물상자 희망DIY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완주 화산중학교 RCY 단원 70명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타국의 친구들을 위해 '우정의 선물상자 희망DIY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우정의 선물상자 희망DIY 캠페인'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세계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학용품들을 포장하고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화산중학교 학생들은 4,000KM 떨어진

친구들에게 진심이 담긴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 선물상자를 제작하고 편지를 작성했다.

우정의 선물상자에는 학생들이 직접 마련한 공책, 색연필 세트, 필통, 수첩, 지우개 등의 학용품이 담겨있다.

이번에 제작된 우정의 선물 90박스는 올해 12월 중 진행될 네 팔 해외봉사활동시 현지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RCY단장 방수

현 학생은 “외국에 있는 친구를 위해 학용품 상자를 포장한다는 것이 새롭고 재밌다”며 “네팔에 있는 친구들에게 제 마음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전북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12월 중 네팔 카트만두로 해외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063)280-5841 RCY본부로 연락하면 된다.

/조강연 기자